

7-21-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누가복음 19:10-27

말씀제목: 므나(pound) 비유와 천년왕국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보상

예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대 환란 끝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상에 자신의 천년왕국을 세우시게 되는 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시는 일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어떤 귀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시는 것을 먼 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시기 전 열 명의 종을 부르시고 각자에게 한 므나(pound)씩 주시면서 자신이 올 때 까지 장사하라(Occupy)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언가 한 파운드가 되는 것을 나누어주셨고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으로 어딘가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와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갈 3:7-9)

믿음이 없는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앞으로 그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줄 것이며, 네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음이라.’ 하더라. 그때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창 13:14-18)

당시 아브람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바라보지도 않고 걸지도 않았지만, 조카 롯은 스스로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온 평지를 자신의 생각대로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감으로써 아브람과 갈라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므로 그곳은 마치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아브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으며 롯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아브람은 카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받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곳을 바라보라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한 므나인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혼들을 이겨움으로 그 땅에서 장사하여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에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돌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행 1:6-9)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권세를 받을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면(suffer) 우리도 그와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딤후 2:12)

예수께서 므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므나를 남긴 자들이 열 고을(ten cities), 다섯 고을(five cities)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남기지 않은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가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이방 땅을 유업으로 주시고 그의 왕국에서 철장으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네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시 2:7-12)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 받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의 소망에 대하여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기 여기기 때문이라.”(롬 8:16-18)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서 휴거되어 하늘에 올라가서 이십사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증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계 5:9-10)

아멘! 할렐루야!